

이대로는 안돼!

尹 信 根*

애견(愛犬)붐이 일고 있다.

아파트, 개인주택 할것없이 여기저기에서 애견을 사육하는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 개 5천 3백만두, 고양이 5천 7백만두란 놀라운 숫자를 보유한 미국이나 기타 선진국의 수준에는 훨씬 못미치는 숫자이긴하지만 우리도 이제 2백만두를 넘어섰다.

애견에 대한 문화적인 감각과 사육에 필수불가결한 가정경제를 감안하면 결코 작은 수치는 아니다.

이런 애견인구의 증가는 우리 임상수의사들에게 이제는 뭔가 달라져야한다는 압박감으로 다가온다.

애견사육주들은 대중매체, 세미나 등을 통해 애견에 대한 지식과 실력을 배양하여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일부 수의사들보다 문제해결능력이 월등해 있음도 간과할 수 없다.

이런 마당에 전문적인 임상수의사들이 기본적인 경험없는 지식만을 가지고 애견사육주들을 만난다면 그것은 누워서 침뱉는 꼴이 되고 말 것이다.

그러면 국내 수의사들의 현주소는 어떠한가? 한마디로 걱정스러운 형편이다. 실질적인 기술도 배우기전에 대학졸업과 동시에 개업하는 수의사가 태반이다. 요즘은 소동물병원이 잘 된다고 하니 너도나도 실력습득과정을 거치지않은 채 사회로 쏟아져 나온다.

물론 수의대 정원이 증가하여 10개 대학에서 1년에 4백여명의 수의사가 양성되다보니 경쟁이

심해져 일어나는 현상으로도 이해할 수 있지만 너무들 준비없이 서두르는 것같아 노파심이 든다.

결과는 어떤가?

자기가 미리 보아둔 좋은 자리에 행여 다른 사람이 개업할까봐 졸업과 동시에 서둘러 개업한 나머지 실력이 들통나 폐업하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이런일은 단지 폐업한 한명의 수의사문제를 넘어 국내에서 활동한 모든 수의사의 명예와 자존심으로 이어진다.

혈관주사하나 제대로 놓지 못하는 수의사들이 있다면 수의사들의 모습은 사회에 어떻게 비춰질까는 뻔한 일이다.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것은 “누구보다 먼저 개업하느냐” 또는 “누가 좋은 목에 개업하느냐”는 것보다 더 선행되어야 할 것은 “실력과 능력을 잘 길렀느냐” “기초를 얼마나 공고히 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한 필요조차 없는 일 아닌가!

만약 이것이 선행되지 않고 현재의 모습을 계속한다면 이는 분명 사상누각이 되고 말 것이다. 이런 문제가 대두된 근본에는 수의사를 배출하는 대학에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국내 수의과대학은 편제상 단과대학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학제는 4년제를 유지하고 있다. 후진국에서나 볼 수 있는 모습이다. 동물들을 하나의 귀중한 생명체로 생각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커리큘럼은 외국의 6년제에 비해 커다란

* 애견종합병원

모순과 미비점을 노출한다. 짧은 기간에 모든 과정을 다 거쳐야하니 당연히 수박 겉핥기식 교육에 머무를 수 밖에 없다.

수의학을 가르치는 교수님들 역시 더 많은 연구와 노력을 경주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일반 의과대학을 생각해 보자!

우리는 보통 1차 병원에서 진료를 하다가 치료가 어려운 경우에는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가면 대부분의 경우 치료가 가능하다.

의과대학 교수 역시 그 분야에서 이론뿐만 아니라 실제 임상가로서 능력을 발휘하는게 보통이다.

그러나 좀 창피한 얘기지만 우리의 경우는 다르다.

다행히도 과거 축산업이 호황을 누리던 시절에는 쫓소 뿐만아니라 여러 축산분야에 수의과대학이 공헌한 바가 컸다.

요즘에 와서는 그 칭찬의 목소리가 차츰 소멸되고 있는 듯한 느낌이다. 일반 동물병원에서 제대로 치료가 안되는 백내장이나 녹내장 등 안과수술의 경우 적어도 대학동물병원에서는 가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종종있다.

이런 현상은 안과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게다가 2, 3차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진료시스템이 없는 것도 국내 수의학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아닐까. 이런 수많은 난관속에서도 우리는 이제 정말 사고의 전환이 필요할때다.

마음의 여유를 갖고 느긋하게 배우고 익히고, 수련하여 자기직업에 멋있게 자신감 넘치게 임해야한다.

동물병원을 개업하면 우리는 보통 40년쯤 종사한다.

이 오랜 세월을 위한 준비기간에 너무 인색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국민학교, 중·고등학교를 통털어 16년이상도 참고 노력해왔지 않았나! 자존심과 명예를 위해 1~2년 아니 3~4년쯤 아낌없이 투자하는 것은 보람 있는 일일 것이다.

이런 사고들의 확산은 개업수의사나 강아지품종하나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거나 주사하나 놓지못하는 불상사를 막는 방패역할을 할 것으로 믿는다.

우리들은 수의사의 권익신장은 물론 존경받고 대접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대기 이전에 우리가 갖추어야할 기본적인 덕목을 완비해야한다.

현재 주어진 일들을 제대로 소화해내지 못하고 잣밥에만 신경쓴다면 우리 모두에게 돌아올 손실은 막대하리라 생각된다. 일반의사들의 경우도 6년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하면 누구나 개업할 수 있지만 그들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턴, 레지던트 그리고 대학병원 등에서 충분한 기술을 습득하는 모습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점이다.

고객들이 왜 수의사들은 애견에 탈이 났을 때 각각 말이 다르고 잘 낫지 않느냐는 물음이 없어질 때만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존경받는 것은 우리들이 하기에 달려 있다.